

고전의 재해석, 오만과 편견 다시쓰기(Lost in Austen)

영국 드라마 <Lost in Austen>¹⁾는 원작의 가치에 버금갈 만한 현대판 <오만과 편견>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았다. 원작에 부끄럽지 않은 각색이라고 생각한다. 원작이 가지는 함의와 의미를 온전히 내포한 채로, **현대인의 시선에서 과거에 갇힌 관념들을 비판하고, 작가가 내린 결론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더불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의 가벼움을, 본 드라마 전체를 통해 심도있게 전개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원작 <오만과 편견>이 가지는 가치보다도, <Lost in Austen>이라는 각색본이 훨씬 더 값지게 다가왔다.

본 글에서는 먼저 원작 <오만과 편견>과 각색된 <Lost in Austen>를 비교하여, <Lost in Austen>이 가지는 새로움과, 그 속에 담긴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Lost in Austen>이 오늘날의 시대상과 과거의 갇힌 관념들을 어떻게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먼저 <Lost in Austen>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원작주제를 어떻게 새롭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다. 삶에서 절대적인 진리란 있는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도 쉽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를 ‘절대적 진리’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타자가 우리에게 강요한 진리(혹은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돌아보면, 타자로부터 주어진 답과 삶의 방식 대해, 우리가 여전히 의문과 비판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듯하다.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 ‘원래 그렇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이다. 드라마 <Lost in Austen>은 원작 <오만과 편견>을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가졌을 법한 다양한 편견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부르게 안다고 생각했던 독자(혹은 시청자)들의 가벼운 삶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던진다.

<Lost in Austen>은 <오만과 편견>에 담긴 이야기를 잘 아는 21세기 독자 ‘아만다’가, 실제로 <오만과 편견> 이야기 속으로 실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이다. <오만과 편견> 이야기 속에서, 현대인 ‘아만다 프라이스’는 작품 속에서 제인 오스틴이 썼던 <오만과 편견> 원작 이야기대로, 등장인물들의 삶이 반드시 흘러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알던 이야기를(혹은 자신이 기대하는 삶을) <오만과 편견> 속 사람들에게 당연스레 요구한다. 아만다는 “엘리자베스, 넌 달시를 만나야 하는 운명이라구!”, “제인, 당신은 빙리씨와 함께 사랑해야 해요”, “베넷 나쁜 놈, 리디아에게 짹짹대지마”와 같은 대사를 서슴없이 말한다. 마치 ‘당연한 삶의 결과’가 있다는 듯이 말이다. 어쩌면 사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 하나같이 아만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빙리는 제인을 좋아하고, 위컴은 나쁜놈이며, 엘리자베스는 달시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1) 한국말로는 <오만과 편견 다시쓰기>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있다.

하지만 <Lost in Austen>은 묻는다. 왜 꼭 <오만과 편견> 원작대로 그들의 삶이 흘러가야 하는가? 아만다가 말하는 ‘영망진창’이라는 말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들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는 이야기대로 흘러가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프라이스’의 마음인가?

생각해보라. 제인이 콜린스랑 결혼하면 안 되고, 샬롯이 콜린스랑 결혼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저 제인 오스틴의 생각이었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아만다와 시청자의 생각일 뿐이다. 원작 <오만과 편견>이라는 미리 정해져있는 결말을 자연스레 당연하고도 절대적인 가치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던가.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고 강요하는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아만다는 ‘위کم과 <오만과 편견> 속 사람들의 삶’에 대해 다 안다는 오만한(Pride) 생각에 갇혀있다. 결말을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만다는 위کم에 대해 위کم은 나쁘다는 그녀만의 편견(Prejudice)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Lost in Austen> 속에서 위کم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당시 여동생 조지아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거짓소문을 내고 일부러 침묵하고 있었고, 위기에 빠진 아만다를 돕고, 사라진 빙리와 리디아를 찾는 것을 도우며, 빙리와 의 결투로 다친 Mr.베넷의 부상치료를 돕는다. 아만다는 위کم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만다는 제인 오스틴이 설명한 말만 믿고, ‘위کم’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렸다. ‘책과 타자의 말’이라는 간접경험을 가지고 마치 위کم에 대해 다 안다고 낙인찍어 버린 것이다.

아만다는 제인 오스틴의 생각과 결론만을 믿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게 원작이니까. 제인 오스틴이 헤아리지 못한, 설명하지 못한 모습이 위کم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아만다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한다. 마치 제인 오스틴의 말이 정답인양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세상을 바라본다.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내 삶과 미래의 정답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겠는가? <Lost in Austen>에서는 아만다와 기존에 원작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야말로 오만과 편견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원작>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는 이미 그들에 대해 ‘다 안다고 자만’하고 있으며, ‘이야기 속 사람들을(특히 위کم) 함부로 편견으로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위کم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만다를 보며, <오만과 편견>의 독자로서 아만다의 마음에 공감하며, 위کم을 고정된 틀로 바라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오만과 편견>의 애독자였던 아만다라는 인물을 통해, <오만과 편견>을 읽은 독자이기도 했던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자리한, ‘오만과 편견’을 일깨운다.

사실 독자가 가질법한 오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만다가 그랬듯, 우리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을 통해서 그녀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고, 생각을 들어 보았고, 그녀의 행동을 보아왔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우리의 얇은 참으로 가벼운 것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날의 <오만과 편견>의 독자들은 200년 전 영국 사회에서 ‘엘리자베스’가 겪어야만 하는 여자로서의 운명의 굴레를, 머릿속의 가녀린 상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경험하여 겪어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 우리는 그냥 사실관계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그녀에 대해 안다는 생각은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시청자는 ‘자신과 같은 독자였던 아만다 프라이스가 경험하는 당대의 상황을 통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대리체험’하게 된다. 독자였던

‘아만다’가 실제 작품 속에서 엘리자베스 대신에 그 환경을 살아가면서 느껴야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아만다가 엘리자베스의 상황에서 ‘그 당시의 일’을 마주하는 일은, 그 당대에 리지가 감내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까칠한 베넷엄마를 마주해야 하는 일이고,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데다 당대 귀족적 관념에 갇힌 달시를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삶에 대해 직접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작품 속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아만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그 당대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의도치 않게 엘리자베스가 겪은 삶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아만다는, 책으로 읽을 때처럼 엘리자베스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마주했던 운명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그 때 엘리자베스가 가졌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Lost in Austen>은 아만다를 통해, 시청자들을 200년 전 영국의 당대 속으로 옮겨놓아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가지는 놀라운 여성으로써의 면모가 더욱 돋보인다. 당대의 여성을 억압하던 사회적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존재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자유로운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상이 존재했다라는 점 말이다. 엘리자베스는 현대 속에서 살아도 될 만큼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 모든 것이 생소했을 현대의 삶에, 엘리자베스는 완벽하게 적응한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옷도 자연스러운 현대복을 입었으며, 휴대폰으로 택시요금 결제 및 노트북 사용에도 거침이 없다. 이러한 모습은 200년 전에 <엘리자베스>와 같은 여성상을 제시한 제인 오스틴에 대한 극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지금 현대인들의 인식으로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 당대에 ‘특정 여성상’에 갇힌 사회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겠는가. 이렇게 갇힌 ‘아만다와 다른 독자(혹은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가냘픈 앓과 이해에, <Lost in Austen>는 의문을 제기한다.

누군가의 정답을 자신의 정답처럼 여기면서, <오만과 편견> 이야기 속에서 살아갔던 아만다. 등장인물이 달라지면, 내용전개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인데, 아만다는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인 줄을 모른다. 주인공은 엘리자베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것이다. 이런 아만다의 모습은, 오늘날 ‘남의 인생의 정답과 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 자신의 인생 속 정답인양 살아가는, 우리의 길들여지고 마비된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아만다에게 ‘제인’은 일깨워준다. “동생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버린 것이라고. 아만다 당신이 달시랑 잘 해보라고”

이에 아만다는 깨닫는다. 정해진 삶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삶이 흘러갈 필요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던 삶의 전개는 제인 오스틴이 정의하는 생각하는 삶이고, 삶의 방식이며, 삶의 관계일 뿐임을. 그렇게 아만다는 <오만과 편견>의 책을 찢어버린다. 현실로 돌아가려다가, 달시의 쪽지를 보고 달시에게 돌아가는 아만다. 아만다는 결국 자신의 삶을, 자기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여 쟁취한다.

다음으로는 <Lost in Austen>이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상과 18-19세기의 관념들을 어떻게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Lost in Austen>에서는 여성관의 재정의를, 귀족의 몰락, 인종차별주의 비판, 동성애에 대한 담론, 이혼' 등에 대한 21세기에는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은 과거의 관념을 비판한다. 비록 앞서 다루었던 작품의 전체 주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아주 짧지만 강하게 말이다.

먼저, 여성관의 재정 의이다. 작품 속에서 제인을 콜린스에게 시집보낸 베넷부인이 남편 베넷과 '제인의 결혼문제'로 다투고 울고 있을 무렵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사랑없이 결혼한 불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제인은 인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자는 그래야만 한다." 이에 아만다는 말한다. "여자의 삶은 인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린 그들을 바꿀 수 있어요. 나 역시도, 내 삶을 바꿀 생각이예요. (...)" 아만다는 베넷부인에게 200년 전 여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여성의 삶에 대해 재정 의"를 해준다. 여성이 그렇게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억지로 인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관념일 뿐이라고. 이에 영향을 받아 달라진 '베넷부인과 제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참으로 기분 좋은 해방감을 선사해준다.

당대 귀족권력을 대표하는 '캐서린'에게 베넷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당신은 위선자다, 상스럽게 허세나 부린다. 카드게임하면서 술수나 부리고,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휘젓고 다니다니. 당신을 거꾸로 들어서 엠브로시아의 우리로 쳐넣고 싶다." 이에 콜린스가 캐서린 편을 들자, 제인이 콜린스에게 "입다 물어 멍청아. 저 열간이와 같은 종자들에게 우리 엄마의 딸, 내 동생들을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21세기 인물인 아만다를 통해, 그 당대의 갇힌 여성관을 해방시켰다. 캐서린으로 대표되는 귀족질서에 굴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이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여성으로의 삶 말이다.

두 번째로는 귀족의 몰락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로, 자본주의를 맞기 시작하며 과거의 지배계급이었던 귀족은 몰락한다. 작품 속에서 콜린스는 '아만다가 상업을 통한 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탐탁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는 빙리 여동생의 요구에, 21세기 자본주의적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부르며, 아만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암시한다. 작품 말미 콜린스와의 결혼을 취소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제인에게 빙리는 이렇게 말한다. "아메리카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다"고. 신흥자본가계급인 빙리는 오늘날 현대인의 인식을 알고 있다. 신흥자본가계급이 굳이 여전히 귀족의 영향력이 썩 영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서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 번째로는 '인종차별주의 비판'이다. 달시가 아만다를 따라 얼떨결에 21세기로 왔을 때, 버스를 타게 된다. 이에 흑인이 같은 버스에 타자 '니그로'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이에 아만다가 다그친다. 인종차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똑같은 한 사람을 '흑인 노예'화 시켜 사람들을 부리던 과거의 관념을 짧게나마 비판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다. 드라마 속에서 빙리 여동생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다. 생각해보라. 200년 전에 아만다가 먼저 (사실이 아니지만)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빙리 여동생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 동성애라는 당대의

금기 역시, 그 당대가 가졌던 사회적 관념일 뿐임을 암시한다.

다섯 번째로는 ‘결혼도 무효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제도라는 것은 시대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당대 귀족계급이었던 캐서린의 입으로 ‘결혼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절대적이며 순종적인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21세기에 각색된 작품 속에는 18-19세기의 관념과는 다른, 21세기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작품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Lost in Austen(오만과 편견 다시쓰기)>는 말한다. 당신들이 <오만과 편견>을 읽고 난 이후에 등장인물에 대해 가지게 되는 그 인식마저도, 제인 오스틴의 일방적 서술에 의한 잘못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만과 편견>을 이해한다는 당신들의 얕이란, 현실에 가닿지 못하는 가벼운 얕이며 이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인 오스틴의 해석의 틀을 넘어, 정해진 삶이란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운명, 인연, 필연이란 없다고.

21세기적 인물인 아만다의 시선으로 보면, 18-19세기는 여전히 ‘여성상, 귀족, 인종차별, 동성애, 이혼이라는 사회적 제도’ 등에 있어서, 시대적 관념에 지배받고 있다고. 오늘의 21세기를 사는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문맥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일 수 있으며, 우리가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 정답과 삶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오만과 편견> 책을 찢고 사랑하는 달시와의 삶을 선택한 아만다 프라이스와, 오스틴이 만들어놓은 결말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엘리자베스처럼,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